참 수행자를 찾아서
(대회 및 즉문즉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여명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 H·P 010-3466-9991

당신은 길에서 환우(말기 암, 전이된 암, 희귀병, 백혈병, 조현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화엄경(華嚴經)에서 병든 이를 만나면 마땅히 그를 자비심으로 돌봐주는 어진 의사가 되라고 하셨고, 법화경 여래수량품(法華經 如來壽量品)에서 좋은 의사는 지혜가 뛰어나고, 가지가지 약의 처방에도 밝아 여러 가지 병을 잘 낫게 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성직자라 일컫는 이들은 어떠한가?

세계 ○○대회, 종교방송○○, 공영방송 스타○○ 등이 즉문즉설에서 조현병 환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건 세속에 있는 이들의 답변이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가할 말이 아니다.

반면에 유명한 큰 ○○께서는 사부대중 앞에서 법문 시 "나는 수행 결과인 법력(신통묘유)이 없어 환우를 만나거나 찾아오면 나의 수행력 부재로 말로 위로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참회와 더불어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었다고 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수행 끝에 얻은 법력(신통묘유)을 득한 이는 없고, 연일 크든 작든 말 잘하는 앵무새들만 득실거린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절집에 오는 이는 없고, 그 많든 불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 지금은 드문드문 노보살님 뿐이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하루종일 하는 것이라곤 불교와 무관한 잡상인에 불과한 것들만 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치판에 회자되고 있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다를 바 없다. 그 중에서도 각종 재와 기복, 잡귀 행상을 일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재를 지내려면 수행의 결과인 수행력(법력, 신통묘유)이 있는 자가 주관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재의 목적은 영가를 스님의 법력(신통력)으로 일깨워 사후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현병 환우 역시도 영가 장애로 대부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조현병 환우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하는가? 똑같은 영가인데 스님의 법력으로 보내면 될 것이다. 제발 사찰은 불조사의 영험신통 선전은 그만하고 지금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바른 수행력 부족으로 득한 것이 없음을… 어느 큰○○처럼…

그래서 소납은 영가 재비로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요양원, 수술비가 없어 생을 포기한 사람 등등에게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하라는 것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앵무새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헌행자의 실천행이 중요한 것이다.

〈사례 : 생명〉

대구에서 전화가 왔다.

스님 저희 어머니(90세)가 ○○큰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다고 집에 모시고 가서 평소 좋아하던 것 해드리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여 모시고 왔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 어머님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스님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하길래 바로 대구로 갔다. 환자를 보니 거동은 아예 불가능했고, 고통 속에서도 겨우 사람만 알아볼 정도다. 그래서 바로 가족 분들과 같이 기도를 해주고는 바로 왔는데, 시간이 일주가 지나자 환우가 일어서고, 걷고, 식사도 잘하며 이삼주가 지나 정상이 되자 그때 법회에 오는 자매가 하는 얘기가 스님 우리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게 기도 부탁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다. 사실은 내가 그분을 보니 임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기도를 했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는 3년 넘게 더 사시다가 결국은 또 다시 병원에서 고통과 더불어 사경을 헤맨다며 기도를 부탁하기에 이제는 정말로 가족 모두가 어머님을 놓아드려야 한다며 병원 도착하니 저녁이었다. 가족들과 같이 기도를 마치고 바로 1인실에 옮길 것을 얘기하고는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편안히 주무시는 듯 임종을 했고…

가족 합의로 매장을 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정산을 하니 형제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이 돌아갔고, 여기 신도 자매에게도 각각 ○백만원이 돌아왔다. 그때 이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님 49재를 지내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수없이 똑같은 법문을 했는데 나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다 하니 즉시에 인근에 있는 ○○구 사회복지과를 찾아 불우이웃, 장애인단체, 요양원 수술비가 없어 생명이 위급한 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달라며 철저히 당부의 말도 전했다고 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찾아오는 이나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며 나왔단다.

여기서 49재, 천도재 등 재를 지내야 소위 천당,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나 산자 모두가 선행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망자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면 그 공덕과 복덕이 어디 가겠는가? 불보살이 우리 모두의 행을 보고 있다며 법문을 참 많이도 했고, 지금도 하고 또 하고 있다. 제발 영상이나 사진 찍는 일 좀 그만하자.

기부하고 보름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웬 전화와 함께 유튜브를 확인해보니 미담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때마다 본인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며 일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9일이 다가오자 이 자매분이 49재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극구 손사래를 쳤으나 스님 덕에 3년 이상 더 사시다 가셨는데 그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하며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그럼 자매분이 공양물을 조금씩 올리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49재를 해 주었다. 참고로 각종 재는 값비싼 공양물이 아닌 재를 지내는 이의 수행력(법력)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든 불보살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때가 되어 생기는 가피력(법력, 신통묘유)이다.

〈사례 : 임종〉

금 번 초파일 직전 본 사찰의 신도이자 사례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래전부터 이 신문 지면을 통해 스님을 알게 됐다고 하며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어머니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제분들이 간병을 하고 있으나 날로 고통만 가중되어 아픔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식으로서 더 이상 넋 놓고 볼 수 없어 실례를 무릎 쓰고 전화를 했단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잊고 편안히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며… 가족과 협의하며 염원하는 차에 지면을 통해 한결같이 정법만을 외치는 스님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제발 스님의 원력(법력)으로 고통을 멎게 해 주시고 편안히 가실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을 하자 사례자(신도)가 스님 이분은 환우분의 장남이며 불자랍니다. 사실 여러 번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스님 사정을 잘 알기에 이제사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럼 그분 사시는 집주소와 환자이름, 병원과 호실, 나이 등을 나에게 보내게 했고 난 그것을 신도카드에 정리해서 불보살님 전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분의 요청이 있었기에 초파일 등도 달아 드렸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기도 다음날 새벽 편안히 주무시듯 가셨다고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며, 스님의 원력(법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법화경 묘장엄왕본사품(法華經 妙莊嚴王本事品)에 최고의 교설도 듣지 않고 외도에 빠져있는 국왕(아버지)을 제도하기 위해 부처님 제자인 아들들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국왕의 면전에서 아들이 신통으로 허공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멈추기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왕이 너의 스승이 누구냐며 바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여기서 아들이 보인 신통은 육신통 중 신족통에 해당하고 병을 낫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지면을 통해 설명했기에 생략한다.

지금 한국불교가 나락에 떨어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때 국왕의 아들이 신통묘유를 보이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종교, 종파를 떠나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득한 것이 있다면, 늦었지만 사부대중 앞에서 입은 굳게 다물고 참 수행자를 찾는 장을 열고자 한다.

모든 경전에서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불보살과 팔부신장을 비롯 모든 수호신들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 또 강조했다. 앉거나 서서 밤낮으로 부른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다.

제발 백주대낮에 대형 절집 산문 앞에서 오물 및 폭행 등등 하지 말고 수행자로서 신통 묘유를 보임이 어떨는지…

대회일시 : 2022년 10월 30일 10:00 ~

참가자격 : 정법 불교를 행한 이로써 수행 끝에 득한 법력으로 조현병, 말기암, 백혈병, 희귀병 등 모두를 완치할 수 있는 수행자.

◎ **참가할 수 없는 자** : 잡귀 등 비불교적인 것(삼재, 사주, 부적, 인등, 사업성취, 합격기도, 재수불공,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각종 재, 월급쟁이 부적, 공양주, 술, 담배, 화려한 불상, 집 짓는 불사(대들보, 기왓장, 석가래 등)만년, 평생 위패, 돌, 바위, 우담바라, ○○장 등등은 일체 참여할 수 없음.
잡귀 및 비불교적인 것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나열하였음을 알렸기에 참조 바랍니다.

- ▶ 환자 선정 시 초기암,1,2기는 죄송하지만 사절합니다.
- ▶ 환우 분 선정시 선착순으로 상담 후 결정하며, 꼭 현대의학 불가라는 진단서 제출.
- ▶ 당일 기도하는 장면은 영상 촬영을 원칙으로 함. (혹시 방송 참여시 모든 자료를 방송에 제출함)
- ▶ 기도 완결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 기도시간은 30분 내로 함. 2회까지는 허용.
- ▶ 결과 검증 : 조현병은 즉시, 나머지 환우는 기도 10일후 병원 진단서(30% 이상 완치 확인)
- ▶ 기도 시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침술, 약 처방 등은 사절함.

※ 바른 정법을 알리기 위해 이 지면을 통해 일반 방송과 종교방송을 향해 몇 번 방송 제안을 했었고, 또 여기 일행과 같이 방송국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불자 여러분, 말세에 바른 불교 중흥을 위해서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도사 등등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도자가 없을 시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즉문즉설)으로 대신합니다.

※ 공양 준비 관계로 참석 여부를 미리 연락 바랍니다.

※ 소승은 글 쓰고, 그림 그리며 지낼 산속 작은 암자나 토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례자 연락처

010-3466-9991 (김○○)
010-4807-6932 (박○○)
010-5699-3173 (박○○)
010-8291-9423 (변○○)
010-9633-7158 (조○○)
010-9108-5819 (김○○)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